

조희연 “서울-평양 학생 교류하자”

오늘부터 열리는 금강산 행사서 10대 교육교류사업 제안

“북한 응답있으면 계획 짜서 통일부에 승인 요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개성공단 방문을 포함한 남북한 간 교육 교류를 위한 10대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2~13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관문집 선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조 교육감이 참석, 북한 교육당국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추진은 조 교육감의 재선 핵심 공약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사업 추진을 위해 아이디어 취합과 사업 구체화를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안 사업으로 10개를 선정했다. 사업에는 ▲서울-평양 진통문화 공동체험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험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서울-평양 교육자 공동학술대회 ▲서울-평양 학생 교육여행 ▲서울-평양 학생 예술활동 교류 ▲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 ▲서울-평양 학생이 함께하는 '과화어울림' ▲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 ▲서울-평양 역사유적 공동탐방이 포함됐다.

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를 위해 두 도시 학생의 개성공단 방문 프로그램

을 운영해 개성공단의 전문 인력 및 관련 기술 탐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양 학생 대상으로는 서울의 특성화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평 축구대회를 포함한 양 도시 학생 스포츠 교류도 추진한다. 개막전과 결승전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평화 역량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1운동 및 독립운동 유적지 등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를 상호방문하고 역사교육을 위한 공동 교육자료를

제작한다.

이번 교류사업은 서울과 평양의 교육 당국이 주관하고 관련 정부부처,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북한에서 반응이 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통일부에 승인요청을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상황과 사업 실무자 간 논의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제안서를 통해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심장이고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이자 심장”이라며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만남과 어울림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올해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서울시, 등록 화물·특수자동차 57000여대 대상 최대 40만원

서울시가 올해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지원을 확대한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덩어리형 화물자동차, 피견인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준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며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자발적 시민실천 운동 '승용차마일리지'의 올해 신규회원 총 7만1000명을 11일부터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7년 도입됐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차량기준)로 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71만9590대다.

20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1247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3436대가 가입 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총 1억900만km(1425백만 포인트 지급)였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등록한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한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뉴스스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앞장서는 종교지도자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3.1운동 100주년 기념 주요기관 대표자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서 김희중(가운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희 천도교 교령,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원형 조계종 총무원장, 김영근 유교 성균관장, 박우균 한국민중교회협의회 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국내 유망 창작자들, 오는 28일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는 전 세계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의 행사인 '서울 크리에이터 어워즈(Soul Creator Awards)'를 28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크리에이터 어워즈는 창업가, 예술가, 비영리 단체 등 국내 창작자를 발굴·지원하는 행사다. 시가 지난달 10일까지 창업·벤처

기업, 비영리 단체, 공연예술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1000개 이상 지원서가 접수됐다.

행사는 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전 일정이 라이브 서울을 통해 생중계된다. 우승자는 우승 상금과 결승 진출 기회를 얻는다.

행사 당일에는 다양한 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 3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 등이 열린다.

관심 있는 누구나 누리집(<https://creatorseoul2019.splashthat.com/>)에서 사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뉴스스

세월호 희생 학생 250명 3년 만에 명예 졸업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미수습 2명 포함)이 3년 만에 졸업한다.

안산 단원고는 12일 오전 10시 본관 4층 단원관에서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의 명예 졸업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4월16일 당시 여객선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가운데 세월호 참몰로 희생된 250명의 졸업식이다.

학교 측은 예정대로라면 2016년 2월 졸업했을 희생 학생들을 위해 참사 뒤 명예 졸업식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미수습 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늦춰달라는 유족 요청에 따라 그동안 명예 졸업식을 미루다 유족의 요청으로 이번에 졸업식을 열게 됐다.

명예 졸업식은 합창과 추모 동영상 상영, 졸업장 수여, 졸업생 편지낭독 등의 순서로 열리며, 유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